

일본, 11호 태풍 피해 상황

- 서일본지역 복숭아, 배, 시설원에 하우스 등 피해 -

오사카지사 단신

18호 (2015.7.18)

시코쿠, 추고쿠 지방의 농작물 피해 이어져

- 11호 태풍은 시코쿠로 상륙한 이후 와카야마현, 효고현, 오사카북부 등 서일본지역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면서 각지에 피해를 일으킴
 - 효고현과 시가현 등지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소방청에 의하면 전국에서 56명이 중경상



- 농업피해로서는 가가와현(시코쿠북부)에서 복숭아와 배가 강풍에 의해 낙과하고, 도쿠시마현(시코쿠동부)에서는 시설원에 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각지에서 피해가 이어졌으며, 이는 11호 태풍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장시간, 강한 비가 내린 것이 원인임
 - 가가와현에서는 복숭아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 괴멸 상황이며, 낙과도 30%이상이어서 출하량은 반감할 전망이다. 동 지역은 시코쿠 제일의 복숭아 산지이며, 2014년 연간 수확량은 1,430t이었음
 - 또한, 와카야마현(오사카부 남쪽)에서도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정확

한 피해상황은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, 감, 귤 등의 과실에도 피해가 예상됨

- 도쿠시마현에서는 엽채류 등을 재배하는 하우스의 파손 피해가 이어졌음
- 일본 최대의 복숭아 산지인 오카야마현에서는 일부의 복숭아 농원에서 가지가 부러지고 낙과가 생기는 등의 소폭 피해가 있었으나, 걱정할 정도의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. 단, 특상품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

- 오사카시 도매시장 관계자에 의하면, 아직 피해상황이 집계되고 있지는 않으나, 돗토리현의 배 과수원에도 일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배 출하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함

시사점

- 피해 정도에 따라, 일부 한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, 그에 따른 국내 가격 급등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
- 또한, 2014년 aT 오사카지사에서 조사한 ‘태풍 영향 조사분석’을 참고하여 향후 8~10월에 발생할 자연재해(태풍)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* 참고 : 농수성, 일본농업신문, 도매시장 관계자 등

[문의 : 오사카지사 조대성 / dscho34@gmail.com]